

윤 대통령 '내부총질' 문자 파장...당 안팎 반발·공세

권성동 원내대표 "유출 부주의" 사과 당 지도부 당혹감 속 후폭풍 차단 주력 물밑 꼼꼼 당권 경쟁 재점화 전망도 이준석 '양두구육' 메시지 유희관 저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당 대표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 인식의 일단이 확인된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셈이 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향후 추이에 따라 이 대표 징계 후 물밑에서 꼼꼼 거리던 당권 경쟁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문자 메시지 공개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 징계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권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 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한 지 엿새 만이다. 권 대행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자신의 '9급 공무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뒤늦은 당내 상황이 쉽사리 정리될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등에 '윤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권 대행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원내대표 취임 후 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합), 9급 공무원 발언, 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구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지도부 교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헌당규상 조기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 없이 지도부체제를 교체할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부총질' 당사자로 추측되는 이준석 대표는 울릉도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욕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라고 적었다.

'그 섬'은 여의도를, '이 섬'은 울릉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내부총질' 문자 메시지 공개 파문을 애들러 저격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울릉도 떠나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 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바이오헬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 서울대병원 내 위치한 헬스케어혁신파크는 각종 산·학·연 융합 연구와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의로기기와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재생의료 등의 4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불특박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선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속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도 한다든지 등을 일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시 소통 미흡...국비확보·현안사업 우려

보안 이유 의원들에 자료 거부

구간경제조정 회의 결할기 논의

국힘 예산정책협의회도 빈축

지나친 내부보안 원인 관측

서울사무소 조직도 대폭 축소

광주시와 광주 국회의원들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국고 예산 확보 등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한 자료 요구에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구간경제조정 회의를 앞두고 광주 국회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민감한 현안이라며 현장에서 자료를 배포한 뒤, 이를 다시 수거해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 간에 증구난방 식으로 의견이

표출되는 등 구체적 구간경제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광주시 안에 남구에 있는 주월 2동을 서구로 보내는 등 그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미리 각 의원실에서 광주시의 안을 검토했으면 이날 회의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광주시는 복합소방물고리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 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 원) 등 90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과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황당'하다는 뒷말을 남기도 했다. 또 지역연론 등에도 이 같은 건의사항을 비밀이라며, 회의 후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소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28일 개최되는 광주·전남 상생협의회를 앞두고도 관련 논의 안건과 내용 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상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안을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한다"며 "광주시가 읍조러들지만 말고 공개할 문제는 공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가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광주시가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강기정 시장의 내부단속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시장이 최근 간부 회의에서 내부 검토 자료의 외부 유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통을 기반으로 보안이 이뤄져야 행정의 유연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등에서는 정무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서울사무소도 대외협력수석보좌관(2급) 자리가 광주로 가고 7급 인원도 두 명 줄어드는 등 조직이 대폭 축소되면서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의 폭마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행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